

거꾸로 한국당

초·재선 '공천 백지위임' vs 중진 '복지부동'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쇄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초·재선과 3선 이상 중진의원 간 행보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선 의원들에 이어 재선의원들은 공천을 당 지도부에 백지위임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강행 시 총사퇴' 등 인적쇄신론을 들고 나왔지만, 3선이상 중진의원들은 자신들에 대한 '용퇴론'이 제기되지 않길 바란다며 한 명도 나서지 않는 등 복지부동하고 있어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 재선 의원 19명은 공천 관련 권위를 당 지도부에 위임하는 각서를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다. 재선의원 모임 간사인 박태흠 의원을 비롯해 김명연·정양석·이은재·홍철호·김태흠·이채익·이현재·박대출 의원 등이 참석했다.

3선 이상'을 꼭 집어 용퇴 혹은 힘지출마를 주장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이종구 의원(서울 강남구갑·3선)은 뉴스1과 만나 "강남 3구 용퇴론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서울지역 의원 49석 중 한국당은 9석에 불과한데, 새로운 피를 수혈해 민주당 지역을 공략하는 데 힘을 쓰는 게 맞지 않나"고 반문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도 최근 중진 힘지출마론을 제기한 당내 초·재선 의원들을 겨냥해 "니가 가라 하와이라는 말을 하고 싶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홍 전 대표는 지난 12일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한국당의 협지가 아닌 곳이 어디 있나"라며 "대구·경북 지역도 옛날처럼 '공천=당선' 등식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초·재선 '인적쇄신론'에 3선이상 중진들 '내 지역구도 협지'

이종구 "용퇴론, 일고 가치 없어" 홍준표 "니가 가라 하와이"

이들은 △보수통합 적극 지지 △당 지도부에 공천 관련 위임각서 제출 △선거법 패스트트랙 통과 시 의원직 총사퇴 당론 채택 요구 등에 합의했다.

앞서 초선의원 25명도 전·현직 지도부와 대권후보로,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의 '힘지출마'를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거취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에 백지위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초선의원인 유민봉 의원은 지난 6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저보다 정치 경험이 풍부한 큰 선배가 나서준다면 국민의 지지를 얻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중진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해론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정작 3선 이상 중진의원 중 '불출마를 하겠다'고 나서는 의원은 한 명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초선의원들의 '힘지출마' 요구에 대해서도 한국당에 협지가 아닌 곳이 어디 있느냐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지난 5일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시·서천군)이 '영남·강남3구

홍 전 대표는 또 페이스북을 통해 황교안 대표를 향해 "이번 총선에서 부디 당을 잘 지휘해서 압승할 수 있도록 강박 협지로 나가 한국당 바람을 일으켜주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신을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진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당 입장에서 심각한 문제인가 따져봐야 한다"면서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불출마 선언하거나 힘지출마해야 등이 나오고 있지만 지역구 여론은 이를 원하지 않을 수 있고, 당 입장에서 당선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나아가야 할 쇄신방향에 대해 그는 "황교안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며 "과거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가 불출마 선언한 적이 있다. 황 대표 경우 지역구를 정한 것도 아니니 불출마 선언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윤호 기자

유승민 "변혁 1막 끝났다" 대표 사퇴...오신환 대표체제로 전환

오신환 "무거운 짐 잘 들고 갈테니 지켜봐 달라"

유승민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변혁) 대표가 14일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신임 대표는 오신환 의원이 맡기로 했다.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직을 맡고 있는 오 의원이 변혁 신임 대표를 맡음으로써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대표 체제의 바른미래당과 오 대표가 이끄는 변혁으로 완전히 양분되는 모습이다.

유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변혁의원 비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당이) 이대로 가면 안된다는 점에 대해 100% 공감대를 가지고 15명의 의원이 변혁을 시작해 많은 고민을 했고,

진통을 겪은 결과가 신당추진기확단이라고 생각한다"며 "변혁의 1막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한다.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변혁 대표직에 물러난다"고 밝혔다.

그는 "오신환 의원이 변혁 신임 대표를 맡기로 만장일치 합의했다"며 "아직 정당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리더십을 창출하는 당헌·당규 있는 것도 아니다. 오 의원이 변혁 대표까지 맡는 등 부담을 지게 됐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제가 무거운 짐을 잘 들고 갈 테니 지켜봐 달라"며 "바른미래당과 국민의당이 통합을 할 때 젊은 담이 됐으면 좋겠



유승민 변혁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젊은 신당추진기획단과 함께 나아가야 할 길을 걸어 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변혁이) 정책 정당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젊은이들

이 조국 사태에서 느낀 분노와 함께 우리 사회를 공정하고 기회 균등한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변혁이 중심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검찰개혁 추진 늦고 이행 진척 없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입법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며, '검찰의 사법특권을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vs 유시민' 3차전...이번엔 KBS서 격돌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번에는 KBS로 무대를 옮겨 설전을 벌인다.

홍 전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MBC 백분 토론에 이어 이번에는 KBS로 무대를 옮겨 유시민 전 장관과 수회에 걸쳐

정치·경제·사회·문화·대북·국방·외교 등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좌·우의 시각에서 토론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혹자는 이걸 두고 비난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줄 안다"면서도 "국민에게 즐겁고 쉽게 대한민국의 좌파와 우파의 생생한

모습을 전달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정치 토론이라는 점에서 널리 이해해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기 기대한다"고 했다.

홍 전 대표와 유 이사장은 지난 6월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인 흥가콜라·알릴레오의 합동 방송인 '흥가콜라'에서 토론했고, 지난달 22일에는 MBC '100분 토론'에 함께 출연해 토론을 벌였다.

심상정 "한국당과 더는 선거제 논의할 필요 없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4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시 의원직을 총사퇴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개혁에 대한 결사행전의 의미로 받아들인다"며 "더 이상 선거제도 개혁을 가지고 한국당과 논의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여야 4당, 그리고 대안정치연대가 '4+1' 논의의 틀을 만들어서 정국회 내에 여야 4당이 추진했던 패스트트랙 법안, 검찰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안전하게 통과시킬 수 있는 민반의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어제 검찰에 출석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사수하겠다'고 주장했는데,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며 "한국당의 이런 행태는 선거법을 왜 바꿔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황교안 대표가 수능전형 50% 확대와 특목고 유지, 일제고사 부활 등이 골자인 교육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정책 참사의 끝판왕이다. 마치 군사독재시대 망령이 부활한 것 같아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